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1월 18일(일) 제1573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 수련회 'PASSION 2026' 1차 1월 30일~2월 1일, 2차 2월 1~3일 대전 배재대학교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PASSION 2026' (이하 패션집회)이 막 오른다. 올해 패션집회는 대전 배재대학교(배재로 155-40)에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PASSION 2026' 주제는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주제 성구로 삼았다. 학업과 진로, 관계 등 수많은 변화와 불안 속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를 경험하고, 견고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1차 패션집회는 1월 30일(금)부터 2월 1일(일)까지 진행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2~4부, 양재 중등부, 강동, 부천, 수원, 영종 파워웨이브, 하랑센터, 몽골 현지 학생들이 참가한다. 2차 패션집회는 2월 1일(일)부터 2월 3일(화)까지 한다. 서빙고 파워웨이브 1부, 양재 고등부, 남양주, 대전, 세종, 도곡, 양지,

인천, 평택, 서산, 안산M센터, 평택 M센터 파워웨이브 학생이 참가한다.

이번 패션집회에서는 개회예배, 저녁집회, 파워페스티벌, 주제 강의, 선택 강의,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저녁집회에서는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송바울 전도사(한티사역), 박위 형제(유튜브 위라클 채널 운영)가 강의한다.

선택강의도 다양하다. 강동민 센

터장(온누리청소년센터)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찾다', 강하선 디자이너 '디자인, 하나님을 닮은 창조어 언어', 고대곤 교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오경숙 본부장(창조과학회) '하나님의 설계', 래퍼 지푸 '8비트 랩으로 고백하는 Unshakable Faith'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반

석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 종료

2026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종료됐다. 지난 1월 5일(월)부터 17일(토)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와 캠퍼스 담당 목사들이 소주제별로 말씀을 선포했다.

윤서영 학생(꿈이자라는땅)은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에 참석해 보고 싶어서 이모와 함께 교회에 왔다"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회 생활도 더욱 성실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김선리 집사(서빙고온누리교회)는 "이번 오직예수 신년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기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겠다"고 고백했다.

/ 박지혜 기자

1월 26~28일 '2026 온누리 목회사관학교'

나를 따르라!

2026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1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오크밸리 그랜드볼룸(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1길 66)에서 열린다.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목회사관학교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해외 비전교회, 협력 교회, 온누리교회 출신 담임 목회자, 선교사 등 목회자 358명이 참석한다.

2026 목회사관학교에서는 공동체 성경읽기, 주제 강의, 소그룹 나눔, 특강, 기도회, 패널토의 등이 이어진다. 주제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 '공동체성경읽기', 신국원 교수 '기

독교 세계관과 선교적 비전', 신무한 장로 '평신도의 세상살이로 나타내는 복음적 세계관'을 주제로 한다. 특강은 박종길 목사 '교역자의 경건생활', 강부호 목사 '교역자의 기도생활'을 주제로 한다.

목회사관학교는 2003년부터 시작된 온누리교회 목회자를 위한 수련회다. 국내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해외비전교회, 협력 교회 등 국내외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과 목회 철학,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한다.

/ 홍하영 기자

2026 상반기 Acts29 비전 콘퍼런스

1월 23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6 상반기 Acts29 비전 콘퍼런스'를 1월 23일(금)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한다.

2026 Acts29 비전 콘퍼런스에서는 전체모임, 권역별 모임 등을 한

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30개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와 협력위원, 스태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온누리교회의 영성과 목회 비전을 공유한다. 해외 목회 현장의 어려움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영적 재충전과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산온누리교회 캠퍼스 전환 및 이전감사예배

서산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 13번째 캠퍼스로 전환된다.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1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서산온누리교회 본당(충남 서산시 안전로 213)에서 드린다. 서산온누리교회는 지난 2004

년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기도처로 설립됐다.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에 힘쓰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5년부터 최영민 목사가 담당목사로 섬기고 있다.

/ 박지혜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은 장차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종의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택하셨다는 것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시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기질과 관심사도 달랐고, 사회적 직업도 달랐습니다. 핵심 네 사람은 어부였고, 같은 동네 벧새다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시몬은 당시 세리 같은 사람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 제국과 싸워야 하며, 처단해야 한다고 여겼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반대 입장에 섰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녹여내는 복음을 능력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3단계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3단계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간헐적으로, 사정이 허락될 때 따르는 무리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지, 예수님이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만 따르던 군중으로서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따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과 생활까지 함께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단계에 이르도록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셨습니다.

열두 제자 명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지도력의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주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 ‘페트라’의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게바나 베드로, 페트라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성급했고,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호언장담하는 안정적이지 않은 성품이었습니다. 반석처럼 견고하고 목적하게, 차분하게 정돈되기 보다는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과 결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베드로가 매우 안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1단계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2단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세계관이 찢어지는 순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떤 때는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대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물을 찢고 있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네 가지 이유로 따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물을 찢고 있다는 것은 일과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보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셋째,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밤에는 얇은 쪽, 아침에는 깊은 쪽으로 고기가 물리는 법입니다. 더 어려운 시간대, 더 어려운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가진 그물을 다 내리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베드로: 우선순위의 재편

누가복음 5:1~11

“예수님이 한번 부르신 제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범하지 않은 결단을 내립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장점이자, 그가 수제자로 쓰임 받은 이유입니다. 그는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때로 과감한 결단을 하고, 평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잠재력을 보셨을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5절).

베드로의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능력 행하시는 권세 앞에서 감히 거역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변에 모여 있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세계관이 그물처럼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경험에 갇혀진 세계관이 깨어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변화가 제자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8절).

뜻밖의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갑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불만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각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겸

손이 베드로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우리에게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신의 죄인 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제자에서 두 번째 단계의 제자로 넘어갑니다(10절).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단순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마 1:17, 누 5:11). 갈릴리 어부들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 앞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충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 됨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죄인 됨을 깊이 깨닫는 분명한 인격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두 차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질문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생애 전체가 “나를 따르라”는 두 번의 부르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부르심과 <요한복음> 21장의 부르심 사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던 베드로를 허용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 배신하고 좌충우돌했던 그를 이롭게 합당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3단계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의 제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시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를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름처럼,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그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부르신 제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척 콜슨 기독교 세계관 센터’ 존 스톤스트리트 대표와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생의 전부만큼 커져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교회, 그리고 다음세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이자 문화 사역자 존 스톤스트리트(John Stonestreet) 목사가 방한(訪韓)했다. 그는 ‘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의 대표로 섬기며 미국 교회와 가정,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11일(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존 스톤스트리트 목사를 만나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과 교회, 다음세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현준, 박지혜 기자

인사를 하자마자 ‘안경’ 이야기부터 꺼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즉 ‘세계관’이 삶의 모든 선택을 결정한다는 지론을 그만큼 강조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한 분명한 사실은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안경을 벗는다면 제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경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진리의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흐리게 보거나 왜곡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기독교 세계관은 필수적입니다.”

존 스톤스트리트 목사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 특정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교회만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교회는 저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침묵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려줄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특정 이슈에 대해 침묵했을 때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고, 여전히 받고 있는지를 털어놨다.

“현재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 심리치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나의 세상에 하나님을 손님처럼 초청합니다.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性)’에 대한 개념에서 큰 도전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프로이트를 비롯한 성혁명가들은 ‘기독교가 성적 쾌락을 억압해 인간을 불행



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마저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도덕에 대해 사과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성은 생명을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억압’이라 불렀고, 교회도 그 거짓말에 속아 같은 편에 서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미국 교회가 겪은 ‘방임의 대가’를 한국 교회는 절대로 치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실수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두 가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 ‘문화와 관련을 맺지 말라’는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지, 법이나 문화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며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둘째, 성 혁명과 관련해 다음세대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 세미나를 많이 열었지만, 정작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What for)?’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나쁜 문화적 습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서구 문명에서는 이제 결혼과 성,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애완동물을 자식이라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존 스톤스트리트 목사는 한국에 관한 우려도 알렸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아닌 이 순간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 ‘빛이 생기는 것’, ‘성적 쾌락을 누리지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일순간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문화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건설합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와 급진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르게 살라’고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옹호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출산율은 그 사회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교회와 가정 회복하는 교육의 필요성

다음세대가 세속적 세계관에 압도되지 않게 하려면,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현재의 공교육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모든 지식과 교육의 기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주어진 것(Given)과 만들어진 것(Constructed)의 분별’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도덕, 결혼, 성별, 정체성 등 모든 것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구성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어진 질서’가 있음을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비조니스, 시민의식, 정부, 인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만큼 극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한 답은 오직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력의 법칙이 변하지 않듯,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실이 이깁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이야기, 더 나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세대가 ‘진리의 렌즈’로 세상 모든 것 바라보도록 도와야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야 한다고 권면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의 정치화’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이슈조차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강한 이유로 ‘중간 집단(Mediating Institutions)’을 꼽았습니다. 거대한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가정과 교회,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존재해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집단들이 개인을 국가의 통제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대표적인 중간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노숙자를 돕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도덕적 형성을 돕는 일을 할 때 국가는 비대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며 뒤로 물러나면, 그 빈자리를 국가가 차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치적인 딱지가 붙을까 두려워서 도덕적 이슈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존 스톤스트리트 목사는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고자 고민하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세대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측면(문화, 사회, 역사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세대가 진리의 렌즈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돕지 못한다면, 결국 세속 문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교회 담장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생의 전부만큼 커져야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사회주의가 해답일까?

어떤 대화에서 누군가가 “사회주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 우리는 사회의 문제들을 둘러보며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자문한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묻고, 약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것이 약속하는 것을 실제로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사회주의가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든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사회주의는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이 사회주의를 떠올릴 때,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마을들, 농산물 직거래 시장,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며 미소 짓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린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모든 사람의 필요가 보장되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형태에서 사회주의란 정부가 모든 산업, 시장, 상업,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무엇을 사

고팔지 결정하지 못한다. 정부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누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사실 많은 사람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모든 것을 정부에 넘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옷, 음식, 음악, 영화, 커피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사회주의가 시도될 때마다 시장이 붕괴하고, 곳곳에 부족 사태가 나타나며, 최악의 경우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를 떠올릴 때 노르웨이보다 베네수엘라나 쿠바를 떠올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

둘째, 사회주의는 이미 여러 번 시도되었고, 최근 사례들만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썼을 때,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이전 단계인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에 의해 도래할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혁명을 이끈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사실 〈공산당 선언〉이 쓰이던 시기에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다. 대신 작가들과 지식인들이 대부분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이끌었다. 그들이 마

르크스의 비전을 실현하려 한 곳마다 수백만 명이 죽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크메르 루주가 캄보디아를 공산주의적 낙원으로 만들려 했을 때, 그들은 불과 몇 년 만에 그 나라 인구 최소 4분의 1을 살해했다. 비슷한 악몽은 중국, 소련,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에서도 일어났다. 20세기에만 사회주의 정부의 손에 1억 명이 죽었다. 사회주의의 결과가 어떨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실제 결과를 알고 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전체 경제의 통제권을 소수의 권력자에게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런 나라들을 떠나 자유로운 나라로 도망친다. 실제로 그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선택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는 유토피아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렇게 가장하는 것은 실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는 항상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선택지를 불가능한 이상과 비교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정치적 운동은 어떤 것이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을 죽이고 억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상만이 아닌 결과를 보아야 한다. 20세기 사회주의만큼 이상과 결과 사이의 간극이 컸던 경우는 없다.

문제는 미국과 같은 사회가 완벽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 문제는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이 세상과 현실에서 실행된 사회주의는 재앙이었다. 단지 “이번에 우리가 사회주의를 시도하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가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대 사회주의자들이 제안하는 단계들은 이미 여러 번 실행되었고,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우리는 악몽으로 바뀌는 낭만적인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사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제안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이미 시도되었고, 최근 사례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하게 실패했는지 알 수 있다.”

“사회주의는 유토피아로 이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장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다음세대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세대 교육

김도영 장로
(분당B공동체)

오늘날 기독교인 청소년들은 급격히 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기독교 세계관은 때로 이 흐름과 정면으로 부딪히곤 한다. 다양한 가치관이 혼

재된 학교와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대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기도모임을 하려 해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청소년들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학교와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종교적 표현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동급생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차별을 낳는다”는 반응을 받으며 위축될 수 있다. 배타성은 어떤 주장이나 진리가 “서로 모순되는 다른 주장과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는 주장은 “평평하다”는 주장과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이는 논리적 차원의 문제로 진리 주장 자체의 성격이다.

모든 사상과 세계관은 배타적인 특성을 가진다. 배타성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논리적 특성이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곧 독선적인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선성은 자기 입장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기독교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모든 사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요나 지배를 통한 독선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사랑은 보편적이다. 기독교의 핵심 윤리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 원수 사랑, 약자 보호’이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다고 믿는다. 인간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오히려 존중이다.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다원성이 흔히 강조된다. “모두가 옳을 수 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주장 속에서 기독교인은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다. 그래서 성, 가정, 생명 윤리(낙태, 성정체성, 혼인관 등)에서 성경적 견해를 밝히면 독선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독교는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종교 다원주의도 하나의 배타적 세계관이다. 상대주의적 가치관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명제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 다른 주장을 틀렸다고 배제를 하는 것이다.

과학 수업에서 진화론은 ‘절대적 사실’로 제시되며, 창조 신앙은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이에 따라 기독교 청소년은 “신앙을 믿으면 학문적으로 뒤처진다”는 압박을 느낀다. 물리학에서 빅뱅 이론은 우주가 정적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팽창하는 동적인 시스템을 설명한다. 그러나 ‘빅뱅’ 이전에 어떠한 물질이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지만, 현재 검증된 물리학으로는 답할 수 없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다. 진화론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러 가설이 있지만, 실험적으로 반복 검증이 어려우며, 모든 생물학적, 철학적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특히 진화론에서는 생명의 기원, 생명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앙과 과학을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질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조화롭게 이해해야 한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등은 과학이 답하지 못하고,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분야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도구이며,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학문과 신앙이 함께 설 수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때문에 유

홍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지식하다’거나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중문화 속에서 성경과 충돌되는 폭력적, 성적 메시지 및 성정체성에 대한 이슈에 노출되면서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학교와 사회라는 공적 공간은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고,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며, 강요 차별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다원적 사회에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표현은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달라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배경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전략이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전도대상자들의 문화와 배경을 고려해 다가가는 전도 방식으로, 온누리교회의 맞춤전도의 원리다. 성경의 진리를 표현할 때 “무조건 내가 맞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강요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증언 형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독교에 관한 질문 및 토론에서 논쟁하는 태도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라는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잘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신년특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영적 전쟁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신임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가 말하는 ‘예수 따르는 길’

“나를 따르라”(마 16:24).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전제한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신임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신임 당회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당회서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새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따르는 사명을 완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온누리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당회서기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목회 방향

이 온 교회의 사역으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합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당회서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당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이재훈 위임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겉에서 볼 때 이재훈 위임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지혜와 추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운영위원들은 아론과 훌 같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골 3:23)는 말씀처럼,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주님을 섬기듯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소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올 한 해 온누리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온누리교회는 ‘항공모함’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나를

따르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 제4차 로잔대회를 온누리교회가 섬기게 하시고, ‘온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는 로잔 정신을 새롭게 정의한 ‘서울 선언’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자, 디지털, 디아스포라 시대를 위한 교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제자들을 글로벌 선교 리더로 세우는 연합과 학습, 선교 플랫폼으로써 필요한 곳에서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항공모함이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어두운 세대에 구원의 등불을 밝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Acts29 미션 얼라이언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연합해 전국 복음을 전 세계 캠퍼스, 일터, 도시, 나라에 전파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장로님의 신앙과 비전도 궁금합니다. 예수 따르는 길에서 특별히 품고 있는 소망이나 기도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와 신학교, 병원과 학교를 세우셨듯이,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북한과 열방에 ‘사도행

전적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곳의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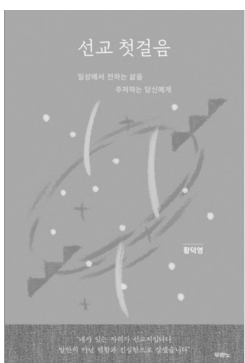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예수 제자의 길을 걸으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며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자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책과 찬양

전하는 삶을 주저하는 당신에게



〈선교 첫걸음〉
황덕영 저 | 두란노 |
10,000원

〈선교 첫걸음〉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도전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

게 한다.

저자 황덕영 목사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선교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선교란 멀리 떠나는 특별한 사명이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 첫걸음〉은 선뜻 ‘전하는 삶’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다.



‘주님 먼저 가세요’
히즈윌(HisWill)

네.”
이 가사처럼, 내가 삶의 핸들을 쥐고 있으면

내가 앞서지 않는 삶

예수님 뒤를 따르겠노라 다짐한 성도들에게 히즈윌의 찬양 ‘주님 먼저 가세요’가 신앙의 올바른 순서를 일깨워준다.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 진정한 ‘따름’은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앞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우리 삶의 순서를 바로잡자. 내가 앞장서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자.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평안히 뒤따르는 한 해를 만들자.

히즈윌의 찬양 ‘주님 먼저 가세요’는 하단 QR코드, 음원 사이트(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벅스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얼어붙은 땅에 울려 퍼진 복음의 선율

영화 '신의 악단'과 박교순 소좌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따뜻한 심리학》저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
터 빛이 그를 돌
려 비추는지라”
(행 9:3).

북녘의 메마른
땅에서 가장 이
질적인 선율이
피어오른다. 영
화 ‘신의 악단’

은 한 인간이 체제의 부속품에서 존엄한 존
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아름답고도 처절
한 기록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북한의 실상
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낯은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한 영혼의 ‘회심(回心)’을 대서
사시로 풀어낸다. 기독교인에게는 깊은 은혜
를, 불신자에게는 드라마틱한 재미와 영적
울림을 선사하는 선교 영화의 탁월한 모델이
다.

가장 거짓된 곳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만나다

영화 속 악단의 본래 이름은 ‘승리악단’이
었다. 북한 체제가 선전하는 화려한 승리의
이면을 상징했겠지만, 공연을 앞두고 이들은
‘신의 악단’이라는 가칭을 얻는다. 그 이유
는 자명하다. 이 영화의 진짜 주제는 체제 비
판을 넘어, ‘가짜’로 시작한 찬양단이 ‘진짜’
신의 악단으로 변모하는 기적에 있기 때문이
다. 승리가 체제의 언어라면, 신은 영혼의 언
어다. 박교순과 단원들이 가 닿은 종착지는
정치적 승리가 아닌 영혼의 자유였다.

그 중심에 보위부 체포조 장교 박교순 소좌
가 있다. 그는 당의 명령에 따라 반동분자를
가차 없이 체포하고 숙청하던 냉혈한 군인이
었다. 그에게 종교는 인민을 마비시키는 아
편이었고, 음악은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처럼, 박교순 소좌는 외화벌이를 위해 ‘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가짜 부흥회에 투
입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도 박교순 소좌는 기만의 길 위에서 생애 가
장 눈부신 진실과 마주한다. 가장 거짓된 곳
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만나는 아이러니,
이것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
문이다.

억압자와 피억압자 관계에서
서로를 보듬는 거룩한 영적 연대로

초기 찬양단은 철저한 위장으로 시작했다.
단원들은 믿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믿는
척’해야 하는 가련한 영혼들이었다. 누군가



▲ 영화 ‘신의 악단’ 포스터
▶ 니콜라 베르나르 레피시에 《바울의 회심》 1767년. 개인소장

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수용소의
부모를 위해 가짜 찬양을 연습했다. 박교순
이 그들을 다그친다.

“더 간절하게 신을 찾는 척하라!”
하지만 기묘한 변화가 시작된다. 소음으로
만 들리던 선율이 굳어버린 그의 심장을 두
드린 것이다. 단원들의 “주여!”라는 부르짖
음은 연기를 뚫고 나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인간답게 숨 쉬고 싶다는 절규로 변모했다.
낯은 악기 줄에서 울려 퍼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선율은 북한의 어떤 선전 가요도
줄 수 없었던 근원적인 위로를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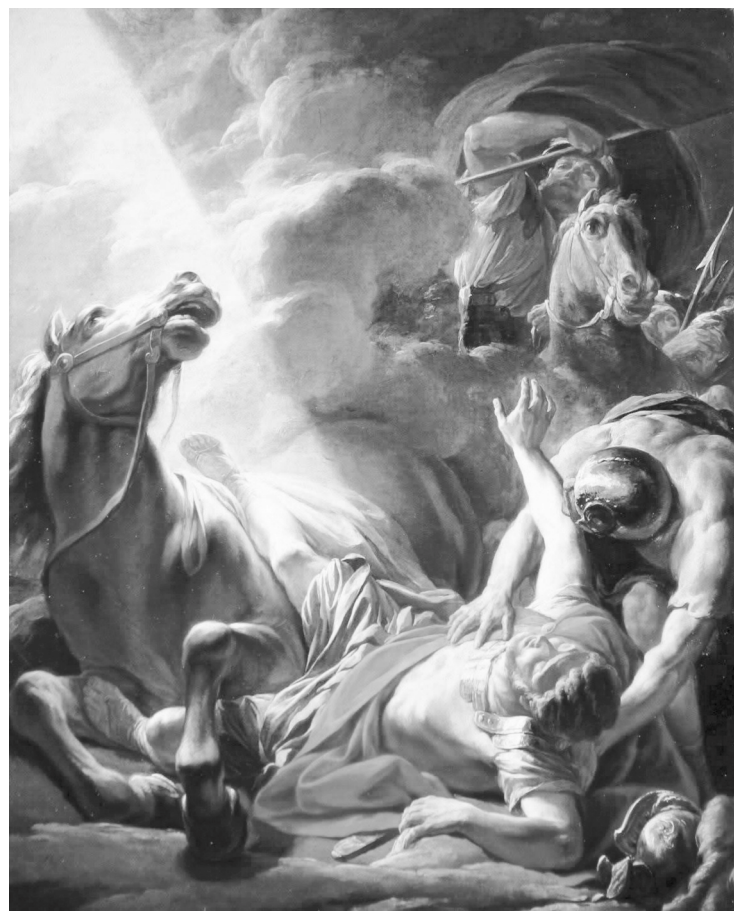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에 눈이 멀었던
사울처럼, 박교순 소좌 역시 자신이 신봉하
던 이념의 세계가 붕괴하는 심리적 어둠을
통과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행 9:8).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 감시 대상이었던 단
원들은 이제 함께 아파하고 노래해야 할 형
제가 되었다.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는
광야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거룩한 영적
연대로 승화된다.

“하나님, 이거 제가 잘한 것 맞지요?”

이 영화에서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
리는 보이지 않는 권능이다. 북한 노래가 한
개인을 우상화한다면, 찬송은 인간 본연의
고독과 구원을 향한 갈망을 담는다.



연습실 구석에서 홀로 흐리는 박교순 소좌
의 눈물은 억눌러왔던 인간적 감정의 분출이
다. 군인으로서 강함만을 강요받았던 그에게
음악은 “너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 속삭인
다. 이 선율이 그에게 총칼보다 강한 양심의
근력을 부여했다. 차가운 이념의 공간이 성
소로 변화가는 과정은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숭고한 기적이다.

영화의 대미에서 박교순 소좌는 단원들을
탈북시킨 죄로 총살형에 처해진다. 이 장면
은 작품이 지향하는 영성(spirituality)의 정
점이다. 차가운 총구 앞에서도 그의 눈은 어
느 때보다 맑게 빛난다. 그가 하늘을 향해 던
진 마지막 질문,

“하나님, 이거 제가 잘한 것 맞지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다. 평생을
거짓 우상에 바쳤던 과거를 청산하고, 참된
진리 앞에 삶을 온전히 봉헌했다는 고백이
다. 육신은 탄환에 쓰러질지언정, 그의 영혼
은 이미 자유로운 새가 되어 천상의 화음에
함류한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짜 노래’를 지켜
낸 그의 행위는 십자가의 희생과 맞닿아 있
다. 그는 죽음을 통해 가짜를 진짜로 만들었
고, 비겁한 생존 대신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
다.

그는 체제의 법을 넘어
사랑의 법을 성취한 현대의 사도(使徒)

‘신의 악단’은 단순히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풍요를 누리는 우리에게도 빠아픈
질문을 던진다. 우리 역시 성공과 성과라는
현대판 우상을 섬기며 내면의 진실을 박해하
고 있지는 않은가?

박교순 소좌는 세례도, 신학도 몰랐지만,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벽한
예배를 완성했다. 그는 체제의 법을 넘어 사
랑의 법을 성취한 현대의 사도(使徒)였다. 그
의 희생은 비극적 종말이 아닌 새로운 생명
의 시작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
니라” (요 12:24).

그의 죽음은 그를 쓴 병사들의 가슴에 의문
의 씨앗을 심었을 것이며, 살아남은 이들의
노래 속에 영원히 흐를 것이다.

상영관의 불이 꺼질 때,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내 눈을 가린 비늘은 무엇인가? 나는
내 곁의 형제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생의 마
지막 순간, 박교순 소좌처럼 땀땀하게 질문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섬기든 그것이 당신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가?’

‘박교순 소좌는 가짜를 연기하다 진짜가
되었다. 혹시 우리는 진짜를 연기하며 가짜
로 사는 것은 아닌가?’

얼어붙은 북녘땅의 노래가 길 잃은 우리 모
두에게 빛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 하늘에 던질 질문이 박교순 소좌의 그
것처럼 당당하기를 소망한다.

“내가 섰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 개최

1월 25일 오후 2시 ‘남양주 캠퍼스 선교를 이야기하다’

2000선교본부가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를 순회하며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첫 번째 장소는 남양주온누리교회다. 1월 25일(일) 오후 2시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남양주 캠퍼스 선교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는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성도들과 온누리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캠퍼스 선교 사례와 아웃리치 성과 등을 나누는 자리다. 설교, 주제 강의, 조별 토의, 조별 발표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장광열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변대섭 목사 설교, 김홍주 목사, 김형일 집사, 정재호 집사 등이 주제 강의를 한다.

김홍주 목사는 ‘온누리 선교’를 주제로 2000선교본부 전체 방향성과 2026년 중점 과제, 캠퍼스 선교 전략을 안내하고, 김형일 집사는 ‘융합



사진은 ‘2024 미션콘퍼런스’.

촉매선교와 사례’를 주제로 융합촉매선교, 와이미션 대외 사역, 양재 선교 사례, 공동체 선교사역자 모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재호 집사는 2000선교본부의 조직을 소개한다. 남양주 김준태 의료선교팀장은 ‘남양주 선교 현황’을 주제로 선교사역 조직 및 사역을 소개한다. M센터

협력 선교, 온라인 아웃리치 성과 등도 나눌 예정이다. 조별 토론에서는 ‘융합/촉매 선교 활성화 방안’, ‘1다락방 1선교 실천 아이디어’, ‘본부-캠퍼스 협력 개선 제안’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문의: 02-795-908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울타리 ‘자립준비청년 멘토’ 모집

순예배 참석,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QT 생활 성도

사회선교본부 소속 온누리울타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를 모집한다. 온누리울타리 자립준비청년 멘토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동체 순예배 참석,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 수료, QT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다. 타 교회 성도는 소속 교회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구역 모임 등 공동체 소그룹에 참석하고, QT 등 말씀 묵상 생활을 하는 성도가 대상

이다. 온누리울타리 정기모임 2회 이상 참석, 멘토 오리엔테이션 수료, 온누리울타리 리더십과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멘토로 선발되면 매월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하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월 1회 이상 일대일 대면 멘토링을 해야 한다. 매월 중보기도 모임과 멘토 모임에도 참석해야 한다.

문의: 010-6479-0885



일.하.세 아카데미 25기 모집

1월 31일~3월 7일 매주 토 오전 9시

‘일.하.세 아카데미’ 2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31일(토)부터 3월 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론홀(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성공관, 성경적 문화관 등을 재정립하고, 일

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1월 3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4949-025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주중 사역 가능, 교도소 사역 헌신한 성도

새사람사역팀 봉사자를 모집한다. 새사람사역팀은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이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큐티(QT)와 일대일제자양육, 인성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봉사자 모집 부문은 일대일제자양육(양육 3회 이상

양육자), 문서 전도, 중보기도, 약기, 예배 찬양 등이다. 주중 사역이 가능하고,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3242-8742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리더십 콘퍼런스, 연합 콘퍼런스 마무리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와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콘퍼런스는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지난 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진행됐다.

청년부 리더십 콘퍼런스는 영산수련원에서 막 올랐다. 청년부 리더십 약 900명이 참석했다. 주제강의, 집회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대학부 연합 콘퍼런스는 소망수양관에서 열렸다. 대학부 청년 65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공동체 프

로그램, 주제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했다.

이유진 자매(SNS공동체)는 “이번 리더십 콘퍼런스는 믿음 안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청년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안겨준 시간이었다”면서 “삶 속에서 더욱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기억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분명한 원동력을 얻었다”고 간증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부천 한사랑공동체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1월 18일 오후 2시 부천온누리교회 3층 꿈아이홀

부천 한사랑공동체(탈북민 공동체)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1월 18일(일) 오후 2시 부천온누리교회 3층 꿈아이홀에서 드린다. 한사랑공동체 소속 탈북민과 목회자, 담당 장로, 봉사자 등이 참석한다. 김혜경 목사 설교, 손준욱 성도 기도, 기도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혜경 목사(부천 한사랑공동체 담당)는 “하나님 은혜로 한사랑공동

체 소속 탈북민들이 해외 아웃리치, 일대일제자양육 등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왔다”면서 “한사랑공동체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 한사랑공동체는 지난 2012년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창립예배

1월 20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OLF) 창립예배를 오는 1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온누리교회 소속 법조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온누리 법조인 모임은 2025년 열린 ‘법조인을 위한 맞춤형 기도회’에서 출발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법조인 성

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기독교 법조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명을 함께 이루고자 만든 신앙공동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역과 상관없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찬기도회, 말씀 나눔, 북클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KOICA 봉사단, 말라위 가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진행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와 KOICA 봉사단이 함께 말라위에서 ‘가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말라위 블랜타이어 마을 Bright Future ECD센터(유아교육기관)에서 아빠 참여 수업과 독서대회를 개최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가정 회복을 돕는 게 목적이었다.

아빠 참여 수업은 지난해 12월 10일 Bright Future ECD센터 운동장에서 열렸다. 게임, 체육, 요리 활동

등을 했다. ECD센터 아동 100명과 남성 양육자 70명이 참석했다.

독서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 동안 이어졌다. Bright Future ECD센터 5세반 아동 37명의 가정이 대상이었다. 한 주에 1권씩 가정으로 책을 전달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었다.

안수현 선교사(말라위, KOICA 봉사단)는 “말라위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며 꿈을 키우도록 돕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illegible]

소천

1/10(토) 광명 문금자 권사 모친상 고 홍순덕
1/10(토) 한강 윤문자 성도 모친상, 박승희 성도 빙모상 고 김연호
1/11(일) 동대문중앙 고 오세재 성도
1/12(월) 동작 유미 성도 부친상, 이대영 성도 빙부상 고 유주봉
1/12(월) 고 이응우 성도
1/12(월) 양천 최병선 장로 모친상, 김인순 권사 시모상 고 정규선
1/13(화) 서빙고 김영자 성도 남편상 고 조영민
1/13(화) 송파A 권형민 성도 부친상, 최영은 성도 시부상 고 권영성
1/13(화) 강남D 김경순 성도 모친상, 이근재 성도 빙모상 고 남상유
1/16(금) 동대문중앙 이경자 권사 남편상 고 최병기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지역: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증서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갈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정식배식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신입회원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레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온누리상담센터(서빙고, 양재) 수련상담사 모집
대상: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
서류: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비용: 한 학기당 50만 원.
과정: 총 2학기 진행, 매주 슈퍼비전과 학기별 교육 포함
마감: 2월 7일까지

직원상담사 모집(서빙고상담센터)
모집: 놀이심리상담사, PCIT상담사
대상: 주1회 봉사 가능한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놀이치료나 PCIT상담사 자격이 있는 상담 석사 학위를 취득자.
서류: 수련상담사 모집과 동일.
문의: 서빙고(02-793-2997, 010-4215-3675), 양재(02-570-7536)

온누리교회 IT지원팀 채용공고
모집: PC 장애 지원, 유무선 네트워크 관리 등
형태: 정규직 1명(수습 6개월), 주5일 근무(화~금, 일)
지역: 서빙고온누리교회
지원: 교회양식 지원서 작성 후 제출(참고코리야 참고)